



① 인사말을 전하는 농단협 이준동 회장 ② 농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의 인사 ③ '거꾸로 하는 토론회'에서 농단협 회장단에 질문을 하고 있다. ④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이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입장을 바꾼 소통 글·사진·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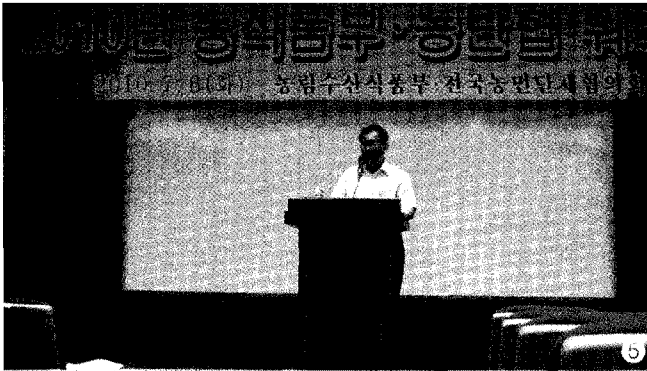
2010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워크숍 성료

-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 ◎ 일시 : 2010년 7월 6일(화) 15:00 ~ 22:30
- ◎ 장소 : 농업연수원 연찬관 2층 소강당

농정현안 토론 및 상호간 이해 증진으로 정책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합동 워크숍이 지난 7월 6일(화)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 이준동 회장을 비롯한 대표조직 회장단 등 120명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장태평 장관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70

여명이 참석해 모두 19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농단협 이준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단협이 농민을 위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며 “품목별 대표조직이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영제 제2차관은 “오늘 워크숍과 같은 역할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비용절감운동본부 성진근 위원장의 특강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위축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농단협 정책건의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의 답변 시간



5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국장의 정책설명 6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이 오리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에는 농식품부 민승규 제1차관은 특강이 이어져 “우리는 모두 농업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고 현주소를 진단하며, “발상전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는 안에서 쪼고, 밖에서도 쪼아야만 태어난다는 졸락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들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농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믿고 꿈을 쫓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새로운 꿈에 도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 ‘소통’을 위하여 실시된 농단협 소속 단체장들의 ‘내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면’ 순서에서는 품목단체 회장의 포부와 희망, 정책 건의를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한국사과연합회 서병진 회장을 등 각 6개 단체 회장들의 발표가 이뤄졌는데, 농가주부모임 최애순 회장은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농업을 최고의 학문으로 만들고,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양돈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모든 산자수 14두로 개량, 분뇨적정처리 및 축산소득세 폐지 등을 실시하여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의 마무리하는 ‘거꾸로 하는 토론회’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농단협 회장단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

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하옥원 사무관은 “기축분뇨가 땅으로 돌아간다면 인공비료 없이 농업생산이 가능한데 다른 작목과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확산하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질문에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사과와 배 등 다양한 작목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확산할 계획”이라도 답변했다. 이 밖에 관광농업협회의 자립방안, 쌀 전업농의 타 작물 재배 사업 등에 관해 질의응답 하였다.

이후 자유발언 시간에서 우리 협회 이창호 회장은 “오리 산업과 같이 자립의 힘으로 이렇게 성장한 산업은 유일 무이하다”고 말하면서 “농식품부에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농업 발전 위하여 농단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품목별로 단체조직이 육성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품목별로 맞춤형 재배, 사육, 마케팅 등으로 시장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워크숍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부와 현장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에서도 정부의 애로점을 이야기하여 산업의 발전 및 농업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